

가계의 초과지출 상태 및 관련변인 분석

Analysis of Overspending in Korean Households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 사 양 정 선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ang, Jung S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verspending in Korean urban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2001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3,250 households. The mean of the spending to income ratio was 1.02 and 37% of the households spent more than 100% of their taken-home incom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overspending. Education, job, household type, the number of earners, the number of children, life cycle, location, and home ownership wer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overspen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useful for financial planners and counselors to make a guide line for overspenders.

Key Words : 초과지출(overspending), 재무비율(financial ratio),
가계지출(expenditure),

* 연락처자: 양정선 (jsyang1120@hananet.net)

I. 서론

최근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에서의 증가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3년 5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가 315만명에 육박하면서 경제활동 인구 7.3명당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 되었다(이건범, 2003). 개인신용불량자의 증가는 가계의 초과지출과 깊은 관계에 있으며, 지속적인 초과지출로 인한 개인 및 가계파산의 우려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실생활에서 가계는 한 해에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나 감소를 경험하게 되므로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특히 가계는 인플레이션, 실업, 경기불황 등 거시적인 경제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과지출의 문제는 생애주기 문제와 함께 일시적인 경제적 사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김연정, 1998). 그러나 초과지출은 가계의 재정상태 건전성에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재무관리 유형이 아니며,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미래의 근로소득 증가 예상에 따른 합리적인 가계 재무관리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즉 가계는 의도적으로 적지 않은 부채를 차용하기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으며 이는 성인 초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가계의 지출을 분석한 BLS 소비자 지출 조사(BLS Consumer Expenditure Survey)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 미국 가계의 약 40% 정도가 자신들의 소득을 초과지출하였다. Bae, Hanna & Lindamood(1993)의 연구에서는 39.5%의 가계가 자신들의 가처분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의 형태를 보였으며, 표본의 25%가 가처분 소득의 121%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990-1992년의 Consumer Expenditure Survey의 자료를 분석한 Jayathirtha & Fox(1996)의 연구에 의하면 40% 이상의 미국가계가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지출패턴을 보여주었다. 초과지출이 생애주기의 일정단계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인 부채로 이어진다면 가계는 주요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횡단분석의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대체로 소비지출보다 항상 크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생애주기 상으로 볼 때에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 저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서 부족이 생기는 부(-)의 저축의 시기가 있다. 즉 소득의 흐름에 따라 지출에 대한 요구도가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소득과 지출의 시차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이기춘 외, 1998).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초과지출은 그 사용 시기와 정도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계재무관리 유형이며, 가계의 현재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초과지출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주택융자, 초과지출, 가계저축, 비상자금 보유 적절성을 다룬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Jayathirtha & Fox, 1996).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초과지출은 지출이 현재의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것에 초점을 둔 소득 대비 지출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가계의 초과지출 실태를 살펴보고, 초과지출집단과 준거집단의 지출비목별 구성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초과지출 정도에 따라 집단간에 사회경제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계의 초과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개별 가계의 특성에 따

른 재정상태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가계의 재정적 건강상태(Financial Strength)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재무상당과 가계관련 정책에 일 도움이 되고 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의 초과지출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전형적인 개인의 소득 흐름은 생산성이 높은 중년기에 비해 초년기와 노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중년기 또는 은퇴직전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하락하는 포물선을 나타내는 반면, 소비의 흐름은 대체로 완만하게 상승한다(Ando & Modigliani, 1963). 즉 인생의 초년기에는 순차입자로서, 그리고 중년기에는 저축을 하면서 초년기의 부채를 갚고, 퇴직후를 대비하여 소득을 적립하게 된다. 또한 노년기에는 부의 저축을 통해서 생애를 유지한다. 이처럼 생애주기가설은 소비자가 전생애에 걸쳐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가정하에서 합리적인 초과지출의 기본 개념을 제공해준다. 소비자가 자신의 기대수명을 알고 있다면 미래 소비의 가치를 현재 소비와 동일하게 두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0이 되며, 따라서 연간 최적 소비는 평균 생애소득과 같아질 것이다(Magrabi, Chung, Cha & Yang, 1991; Bae, Hanna & Lindamood, 1993에서 재인용). 올해 소득이 평균생애소득 보다 낮다면, 소비자는 올해에 초과지출 할 것이며 반면 평균 생애소득보다 높다면, 소비자는 올해에 초과지출 시기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또는 미래의 저소득에 대비하면서 지출을 할 것이다. 한편 초과지출은 Dusenberry(1963)의 상대소득가설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가계의 소비지출 형태는

은퇴하기 이전에 행해졌던 최고의 경제수준에 맞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의 감소나 단절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노인기에 지출이 소득을 상회하는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저축과 부의 저축이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은 절대액에 기초한 단순측정보다는 재정상태의 상대적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측정의 정밀성과 비교 가능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Griffith & Widdows(1985), Prather(1990)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이상의 측정치를 기초로 한 상대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재정상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은 순자산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용이하다고 하였다. 재무비율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초과지출, 지불능력, 자산의 유동성 정도를 밝혀줄 수 있는 재무비율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재무비율은 파산의 방지와 적절한 지출수준의 유지 및 투자자산의 형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양정선, 1997).

Lytton, Garman & Porter(1991)는 재무상당자들이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재무비율의 하나로써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제안하였다.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총지출액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서 1.0을 넘는 경우 초과지출로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1보다 작은 경우 가처분 소득이 월평균 지출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순흑자를 의미하며, 1보다 큰 경우 현재의 생활비 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부가적인 소득원이나 초과수당, 유동자산의 인출, 추가적인 신용의 사용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1.0을 약간 선회한다 하더라도 안전한 소득 원천이 있거나 일반적인 은퇴계획이 있어 생활의 안

정성이 보장된다면, 재정적 목표를 향한 적절한 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역치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의 실질적인 패턴과 초과지출과 관련된 요인 파악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소득 대 지출비율의 역치를 1.0으로 사용한다(Bae, Hanna & Lindamood, 1993).

2. 초과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초과지출 및 다양한 재무비율 분석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분석 대상자의 생애주기, 가족구성, 경제적 상태 및 배경, 그리고 재무관리의 목적과 가계의 선호 등 개별가계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Griffith, 1985; Mason & Griffith, 1988).

순자산의 가치가 0이거나 또는 음의 값을 가진 미국 가계는 1993년 11%에 달했으며, 이 비율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의 가치가 음의 값을 가진 가계는 가구주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집단에서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경우 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U.S. Census Bureau, 1995; Chen & Finke, 1996에서 재인용). Chang(1994)의 연구에 의하면 1983-1986년 사이 40%의 미국 가계가 부의 저축을 보였으며, 이것은 주택을 제외한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소는 보다 젊은 연령층과 저소득층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현재의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젊은 가구주는 미래의 소득 증가를 예상하고 초과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은 생애주기가설을 비롯하여 초과지출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지출유형 및 초과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ae, Hanna & Lindamood, 1993). 고졸이하의 학력인 경우 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보다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감소하였다(Jayathirha & Fox, 1996). 많은 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투자는 초과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생애주기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초과지출은 미래의 보다 높은 소득의 견지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에서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또한 신용사용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래의 지불능력에 기초해서 신용의 사용이 가능한데,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주는 미래의 상환능력이 저조한 가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직업상태도 초과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봉급생활자인 가계에 비해 초과지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ayathirha & Fox, 1996). Bae, Hanna & Lindamood(1993)는 공장노동자,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전문·기술직, 관리직 종사자들에 비해 초과지출을 할 확률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인숙·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도 가구주의 직업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쳐, 노무자가구는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임에 따라 생활필품비 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이는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28.6%에 달하였으며, 봉급자가구는 기타 소비지출비가 우위적인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노무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26.5%를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Paulin(1995; Jayathirha & Fox, 1996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에는 소비지출 유형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숙·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도 주거상태에 따라 소비

지출 유형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반 이상이 교육교양오락비를 위주로 한 소비유형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내집마련을 향한 내핍생활이 예상됨에 따라 생필품비 우위적인 유형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매월 집세를 지출하는 월세가구는 주거비 우위적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ayathirha & Fox(1996)의 연구에서는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초과지출의 격차를 보였는데, 무주택자인 경우 초과지출이 47%에 달하였고,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경우 37%로 나타났다.

가계구조 역시 초과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초과지출의 가능성은 증가하였으며, 18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계의 경우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감소하였다(Jayathirha & Fox, 1996). 독신가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계의 초과지출 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Bae, Hanna & Lindamood, 1993) 가족생활주기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가계의 취업인수에 대해서는 대조적인 설명들이 보여지는데, 류재술(1992)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의 소득원수 증가에 따라 가계가 벌어들이는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개인 및 가계가 소득수준을 과대평가하여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한 반면,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5)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원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실질소득의 증가 가능성과 관련되어 초과지출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하였다(김연정, 1998).

또한 가구유형 역시 가계의 지출패턴에 영향을 미쳐, 노인가계의 경우 자녀나 친지 등 타인의 도움으로 소득보다 더 많은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ffer, 1976 ; 김연정, 1998에서 재인용). 선행연구결

과 주부취업에 따라서도 소비지출에 차이를 보였는데 주부가 취업을 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교육교양오락비 위주의 소비유형을 보여주었으며(주인숙·양세정, 1997), 양정선(1997)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 가계의 지불능력이 전업주부 가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역시 가계의 초과지출 및 지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Hanna, Wang & Lindamood(1994)의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가계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가계가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더 높았고, Bae, Hanna & Lindamood(1993)의 연구에서도 대도시 거주가계는 농촌지역 및 소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초과지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계의 초과지출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계의 초과지출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초과지출집단과 준거집단의 지출비목별 구성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가계의 초과지출 집단간에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가계의 초과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01년 도시가계조사로서, 이는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서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조사한 자료가

다. 2001년 월평균 5,141가구를 매월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는 가계의 초과지출에 관한 재정상태 분석에 목적이 있으므로 1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된 가계 중에서 부실기재된 가계를 제외한 3,250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가계의 초과지출은 소득대비지출 비율(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로서 파악하였으며 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 1 인 집단을 초과지출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초과지출여부는 초과지출하는 경우 1, 초과지출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유형, 취업자수, 자녀수, 가족생활주기,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를 사용하였다. 가구주 직업은 통계청의 분류에 근거하여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로 나누었으며 사무직을 준거집단으로 하였고, 가구유형은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로 나누었으며, 이 중 일반가구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첫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초등교육기 이하, 중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 대학교육기 이상으로 나누었고, 이 중 대학교육기를 준거집단으로 처리하였다. 이외에도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는 가변수화하였으며, 가구주 연령, 취업자수, 자녀수는 연속변수로 사용되어졌다.

초과지출 집단과 준거집단의 지출 비목별 구성비를 비교하기 위하여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이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초과지출하

는 가계를 상, 중, 하의 3집단으로 분류하여 초과지출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빈도분석, T검증, 분산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약 84%가 남성 가구주 가계였고, 평균 연령은 45세였으며, 학력은 고졸이 4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노무직/기타, 서비스직,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고, 가구유형의 경우 맞벌이가 표본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이밖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가계의 초과지출 실태

가계의 초과지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과 소비 및 소득대비지출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경상소득은 임금, 봉급, 지대, 이자, 배당금, 이윤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확실성 있게 들어오는 소득을 말하며(이기춘, 1991), 본 분석에서는 세금공제 이전의 가계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이전 소득을 합한 소득이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가계가 비교적 자유로이 그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돈이다. 이외에도 소비지출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 변수		빈도(N=3,250)	백분율
성별	여성	532	16.37
	남성	2,718	83.63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820	25.23
	고졸	1,442	44.37
	전문대졸	232	7.14
	대졸	642	19.75
	대학원이상	114	3.51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337
	준전문직	297	9.15
	사무직	257	7.91
	서비스직	615	18.94
	노무직/기타	1,741	53.62
가구유형	노인가구	177	5.45
	모자가구	81	2.49
	맞벌이가구	806	24.80
	일반가구	2,186	67.26
가족생활주기	초등교육기이하	1,660	51.08
	중고등교육기	672	20.68
	대학교육기	301	9.26
	대학교육기 이상	617	18.98
거주지역	서울	548	16.86
	서울이외 지역	2,702	83.14
주택소유형태	무주택	1,001	30.80
	주택소유	2,249	69.20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 연령		45.11	11.03
취업자수		1.44	0.82
자녀수		1.59	0.91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분포 실태를 살펴보면 월평균 경상소득은 2,140,694원이었으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857,961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계의 생활을 위해 쓰여진 소비지출은 월평균 1,775,984원이었으며,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282,733원이었다. 하위 25%의 순위에 해당되는 표본가계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1,350,000원이었고, 상위 25%의 순위에 해당되는 표본가계의 경우는 2,700,000원이었으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의 경우는 각각

1,180,633원과 2,366,683원으로 나타나 약 2배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 25%의 순위에 해당되는 표본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하위 25%의 순위에 해당되는 표본가계에 비해 2배 정도 많지만, 비소비지출에서는 약 6배 가까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초과지출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대비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이 약 1.02로서 표본가계의 평균 소비지출이 평균 가처분소득을 다

<표 2> 가계의 초과지출 실태

항목	25%	Median	75%	Mean	S.D.
월평균 경상소득	1,350,000	1,957,333	2,700,000	2,140,694	1,189,264
월평균 가처분소득	1,180,633	1,728,842	2,366,683	1,857,961	1,139,887
소비지출	1,030,720	1,477,695	2,077,093	1,775,984	1,525,596
비소비지출	55,630	136,290	323,742	282,733	626,730
소득대비지출 비율 ^a	0.6362	0.8592	1.1786	1.0178	12.1538

a: 소득대비지출 비율 : 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의 분포상으로 볼 때 하위 25%에 해당되는 표본가계에서는 약 0.64의 안정된 지출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값은 약 0.86이며, 상위 25%에 해당되는 표본가계에서는 약 1.18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 사용된 3,250가구 중 초과지출을 하는 가계는 1,206가구로서 약 37%가 초과지출하는 재정상태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가계의 초과지출을 연구한 Bae, Hanna & Lindamood(1993)에 따르면 하위 25%에 해당되는 표본가계에서 소득대비지출 비율이 0.66의 안정된 패턴을 보이며, 중앙값이 0.90이고, 상위 25%에 해당되는 표본가계에서는 1.21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매우 흡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본가계의 39.5%가 초과지출의 재정상태를 보여, 본 연구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과지출집단과 준거집단의 지출구성비 비교

초과지출집단의 지출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준거집단과 비교하기 위하여 지출 비목별 비율을 분석하였다. 초과지출집단의 지출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준거집단과의 비교가 필요하고, 또한 비교를 위해서는 절대액수의 비교보다는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지출비목별 액수의 비율 비교가 보다 타당하므로 이들 10개 비목에 대해 비율을 산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타소비지출을 제외한 모든 비율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였다. 초과지출집단은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가 준거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비중이 적었고, 나머지 7개 품목에서 준거집단보다 높은 지출비중을 보였다. 초과지출 여부는 소득과 지출의 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것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식료품비의 지출비중이 초과지출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앵겔계수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교육비의 경우 초과지출집단에서는 총소비지출의 12.57%를 교육비로 지출한 반면, 준거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9.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 부담이 초과지출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총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초과지출집단은 5.18%, 준거집단은 3.58%로 나타나 보건의료비가 많은 지출비중을 차지하는 노인가계 및 가족원 중에 환자가 있는 가계에서 초과지출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초과지출 집단과 비초과지출 집단 간에 의료비 지출평균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는 Bae, Hanna & Lindamood(1993)의 분석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표 3> 초과지출집단과 준거집단의 지출비목별 비율 비교

소비지출대비 지출비 비율	준거집단 ^a (N=2,044)	초과지출집단 ^b (N=1,206)	T 값
소비지출대비 식료품비 비율	0.3265	0.2686	47.63***
(소비지출대비 외식비 비율 ^c)	0.1236	0.0994	32.12***
소비지출대비 주거비 비율	0.025	0.037	-14.89***
소비지출대비 광열수도비 비율	0.0708	0.0571	23.58***
소비지출대비 가구가사비 비율	0.0258	0.038	-16.03***
소비지출대비 피복신발비 비율	0.0526	0.0573	-7.20***
소비지출대비 보건의료비 비율	0.0358	0.0518	-17.10***
소비지출대비 교육비 비율	0.0944	0.1257	-20.20***
소비지출대비 교양오락비 비율	0.0344	0.0485	-16.73***
소비지출대비 교통통신비 비율	0.1596	0.142	16.20***
소비지출대비 기타소비지출 비율	0.1752	0.174	0.98

a: 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 1 인 집단

b: 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 1 인 집단

c: 외식비는 식료품비에 속하므로 비율의 합계가 1.0을 초과함

저소득집단의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주거비를 살펴보면 준거집단은 2.5%에 머무른 반면 초과지출집단의 경우 3.7%를 차지하여, 초과지출집단이 저소득 가계의 특성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초과지출 가계는 이러한 여러가지 지출 부담을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와 같은 비목에서 줄이려하는데 특히 식료품비에서 두 집단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4. 초과지출 집단간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초과지출 하는 가계만을 선별하여 초과지출 정도를 하위, 중위, 상위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집단간에 사회경제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4>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구주 성별의 경우 초과지출 하집단에서 약 14%인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집단에 무려 약 2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가구주 집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초과지출 정도가 심해질 수록 가구주 연령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초과지출하는 모든 집단에서 고졸, 중졸이하, 대졸, 전문대졸, 대학원의 순이었으나, 초과지출 정도가 심해질 수록 중졸이하의 가구주 구성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주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알 수 있었다. 가구주 직업을 살펴보면, 초과지출하는 모든 집단에서 노무직/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서비스직으로 나타났다. 관리전문직과 준전문직의 경우도 초과지출하는 모든 집단에서 약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 소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초과지출 외에도 과다지출로 인한 초과지출이 적지 않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초과지출의 정도가 심한 집단일 수록 노인 가구와 모자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반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초과지출 가계라 하더라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노인가구와 모자가구

<표 4> 초과지출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 비교

독립변수		초과지출 하집단 ^a	초과지출 중집단 ^b	초과지출 상집단 ^c	F값 / χ^2 값
성별	여성	57(14.18)	67(16.59)	79(19.73)	53.35***
	남성	345(85.82)	335(83.41)	323(80.27)	
가구주 연령		44(10.60)	45(11.03)	47(11.75)	45.10***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90(22.39)	101(25.12)	119(29.60)	74.652***
	고졸	187(46.52)	179(44.53)	168(41.79)	
	전문대졸	29(7.21)	28(6.97)	26(6.47)	
	대졸	80(19.90)	80(19.90)	78(19.40)	
	대학원이상	16(3.98)	14(3.48)	11(2.74)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44(10.95)	41(10.20)	36(8.96)	24.61**
	준전문직	39(9.70)	41(10.20)	37(9.20)	
	사무직	30(7.46)	30(7.46)	26(6.47)	
	서비스직	71(17.66)	73(18.16)	71(17.66)	
	노무직/기타	218(54.23)	217(53.98)	232(57.71)	
가구유형	노인가구	22(5.47)	26(6.47)	33(8.21)	71.75***
	모자가구	10(2.49)	11(2.74)	16(3.98)	
	맞벌이가구	99(24.63)	90(22.39)	83(20.65)	
	일반가구	271(67.41)	275(68.40)	270(67.16)	
취업자수		1.45(0.81)	1.40(0.82)	1.29(0.84)	46.49***
자녀수		1.65(0.88)	1.65(0.91)	1.60(0.97)	4.66**
가족생활주기	초등교육기이하	209(51.99)	192(47.76)	180(44.78)	85.80***
	중고등교육기	91(22.64)	96(23.88)	89(22.14)	
	대학교육기	37(9.20)	38(9.45)	48(11.94)	
	대학교육기 이상	65(16.17)	76(18.91)	85(21.14)	
거주지역	서울	331(82.34)	331(82.34)	340(84.58)	9.96**
	서울이외 지역	71(17.66)	71(17.66)	62(15.42)	
주택소유형태	무주택	134(33.33)	132(32.84)	126(31.34)	4.10
	주택소유	268(66.67)	270(67.16)	276(68.66)	

a-c : 초과지출 정도를 하위, 중위, 상위의 3집단으로 나눈 것으로, 이중 상집단의 초과지출 정도가 가장 심한 집단임

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취업자수는 초과지출 하집단에서 평균 1.45명인 것이 상집단에서는 1.29명으로 나타나 초과지출이 심한 집단에서 소득원 자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자녀수는 초과지출 상집단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생활주기를 살펴보면 초과지출 하는 모든 집단에서 초등교육기 이하의 집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나 초과지출 정도가 심해질 수록 이들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대학교육기와 대학교육기 이상의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 연령증가에 따른 은퇴의 증가 및 근로소득의 단절에 따른 효과로 보여진다. 거주지역은 초과지출하는 모든 집단에서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들 비중은 초

<표 5> 초과지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Exp(B)
성별(여성)	-0.005	0.034	1.005
가구주 연령	-0.003	0.002	0.997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중졸이하	0.033	0.968
	전문대졸	0.038	0.963
	대졸	0.091**	0.913
	대학원이상	0.104	0.902
가구주 직업 (사무직)	관리전문직	0.046	0.955
	준전문직	0.235***	0.790
	서비스직	0.061	0.941
	노무직/기타	0.174***	0.840
가구유형 (일반가구)	노인가구	0.448***	0.639
	모자가구	0.190**	0.827
	맞벌이가구	-0.115***	1.122
취업자수	0.103***	0.019	1.109
자녀수	-0.152***	0.014	0.859
가족생활주기 (대학교육기)	초등교육기이하	-0.234***	1.264
	중고등교육기	0.018	0.982
	대학교육기 이상	-0.302***	1.352
거주지역(서울 이외지역)	0.015	0.029	0.985
주택소유형태(무주택)	-0.202***	0.025	1.224
상수	0.626	0.108	
-2 Log Likelihood	50887.876		
Chi-square	549.901***		

*p < .05 **p < .01 *** p < .001

과지출 상집단에서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는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록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Bae, Hanna & Lindamood, 1993 ; Hanna, Wang & Lindamood, 1994)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 가계의 초과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의 초과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대졸인 경우 고졸집

단에 비해 초과지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가 준전문직과 노무직/기타에 종사할 경우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초과지출 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준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미래에 보다 안정된 지불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노무직/기타 종사자의 경우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자이고 전문·기술직, 관리직 종사자일수록

미래의 높은 기대소득을 예상하고 현재의 구매력을 높인다는 생애주기가설을 뒷받침하던 선행 연구(Bae, Hanna & Lindamood, 1993 ; Jayathirha & Fox, 1996)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절대적인 빈곤에서 비롯되는 초과지출이 일정 부분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일반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초과지출 하는 경향이 크고 맞벌이 가구는 초과지출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경제적 복지상태가 열악한 측면을 생각할 때,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한 초과지출이라기 보다는 절대적 궁핍에서 비롯되는 초과지출의 가능성으로 생각된다. 맞벌이 취업의 경우 취업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빈곤탈피, 자아실현,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취업 등) 일반가구에 비해 현재의 재정상태에서, 소득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원 중 취업자수가 증가할 수록 초과지출할 가능성은 높게 나타나 취업인 수가 증가할 수록 소득도 증가하지만,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 수록 초과지출의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이는 본 분석에서 자녀의 연령을 학령기 자녀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 폭이 크고, 이는 자녀수의 증가가 학업이후의 소득원으로서 가계의 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상에서 보면 대학교육기 단계에 비해 초등학교기 이하와 대학교육기 이상에서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초과지출의 가능성이 감소한 Jayathirha & Fox(1996)의 연구와는 유사한 맥락의 현상으로 보여진다.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 비하여 주택소유자의 초과지출 가능성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

로 나타나 주택장만이라는 커다란 재정적 목표달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무주택자의 가계의 초과지출이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초과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Jayathirha & Fox(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동기와 경제적 상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초과지출에 대하여 그 실태와 특성 및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계의 초과지출 성향을 파악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의 재정적 건강상태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초과지출 집단은 지출구성비 분석에서 교육비 부담, 보건의료비 부담, 주거비 부담이 준거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비 부담의 경우 우리나라 특유의 높은 사교육 투자 부담이 지출의 비목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여지며, 이밖의 의료비 및 주거비 부담의 특성은 초과지출 집단이 전형적인 저소득 가계의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둘째, 초과지출 정도에 따른 가계의 특성 비교에서는 초과지출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들과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특히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은 초과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초과지출 정도에 따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성가구주 가계,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 노무직/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가계, 노인파 모자가계의 초과지출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 이

들 가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알 수 있었다.

셋째, 초과지출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대비 지출 비율의 평균 및 초과지출 집단의 분포는 미국 가계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초과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미국의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과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미래의 기대소득을 높게 인지하고 현재의 초과지출을 보여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생애주기가설의 뒷받침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초과지출 외에도 절대적 빈곤에서 비롯되는 초과지출이 상당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구주의 직업이나 가구유형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초과지출 가계의 여러가지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사회의 초과지출 가계는 소비자의 예상 노동수명과 노동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초과지출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 초과지출은 근본적으로 미래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현재선택적 관점에서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초과지출과 절대적 소득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빈곤적 특성의 초과지출로 이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소득 계층의 특성을 보여주는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생애주기 상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재무관리 상의 초과지출을 위한 가이드 라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무계획과 관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지출이 불가피한 교육비의 부담과 저소득층에서의 전형적인 지출특성으로 나타나는 의료비 및 주거비 부담은 절대적 빈곤에서의 탈피를 어렵게 만드는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초과지출의 가계를 위해서는 부가소득의 창출 및 복지 수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중심으

로 가계재무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 자신의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가정해체 및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오늘날의 소비행태 및 지출성향의 탈피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관념과 경제윤리 교육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겠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적 규모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각 가계의 재무관리 능력이나 유형 및 시간선택적 특성과 같은 개별가계의 특성에 대한 많은 변인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조사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전국적 규모의 종단적 자료가 개별가계의 사회심리적 변인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가계의 재무관리에 관한 다양한 변인을 갖춘 자료가 보다 정확한 가계분석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열의가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1) 김연정(1998).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3)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4) 이건범(2003).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동향, 12(23), 1-7.
- 5) 이기춘 외 5인(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현사.
- 6)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교문사.
- 7) 정순희(2000).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

- 계간 소비지출 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93-108.
- 8) 주인숙·양세정(1997). 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77-290.
- 통계청(2002). 도시가계연보
- 9)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10) Bae, M.K., Hanna, S. & Lindamood, S.(1993). Patterns of Overspending in U.S. Households, 「FCP」4, 11-30.
- 11) Chang, Y.R.(1994). Saving Behavior of U.S. Households in the 1980s: Results from the 1983 and 1986 Survey of Consumer Finance, 「FCP」, 5, 45-64.
- 12) Chen, P. & Finke, M.S.(1996). Negative Net Worth and the Life Cycle Hypothesis, 「FCP」, 7, 87-96.
- 13) DeVaney, S.(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CP」, 4, 31-47.
- 14) Hanna, S., Wang, H. & Lindamood, S.(1994). Do Elderly Households have Rational Financial Plans: Evidence from Consumer Expenditure Data. 「AFCPE 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272-288.
- 15) Jayathirha, C. & Fox, J.J.(1996). Home Ownership and the Decision to Overspend, 「FCP」, 7, 97-106.
- 16) Lytton, R.H., Garman, E.T. & Porter, N.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CP」, 2, 3-25.
- 17) Prather, C.G.(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CP」, 1, 53-70.